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5월 26일(주일) 제1247호

‘모세(Moses)_세 가지 선물’

어드벤처 2019, 6월 6일부터 15일까지 온누리교회 순회
주일학교 교사, 여름캠프, 아웃리치 준비 중인 성도 대상

‘어드벤처 2019 교사강습회’가 시작된다. 올해 어드벤처 주제는 ‘모세(Moses)_세 가지 선물’이다.

어드벤처 2019 교사강습회는 6월 6일(목)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국내 온누리교회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6월 8일(토) 양재 온누리교회, 6월 15일(토) 수원, 부천,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실시된다. 어드벤처 2019 교사강습회에는 주일학교 교사나 여름캠프, 국내외 아웃리치(여름성경학교 등)를 준비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등록비를 입금한 다음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회비는 6월 3일까지 등록하면 1만5천 원, 당일등록은 2만 원이다.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어드벤처 2019 교사강습회가 열린다. 중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비전교회 5월 말과 6월 초, 베트남 온누리교회에서는 9월 중에 한다.

어드벤처(Adventure)는 차세대사역본부가 주최하는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다. 성경으로 떠나는 모험을 주제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한국 교회 여름성경학교 및 여름캠프, 해외 아웃리치 등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사역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차세대사역본부장 노희태 목사는 “어드벤처 2019 교사강습회에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진은 지난해 서빙고 영아부 어드벤처.

고난과 역경을 믿음과 기도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02-3215-3521, 02-570-7436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03-6010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마리아행전’ 참가신청 서두르자

교회 홈페이지나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2019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려면 신청을 서둘러야겠다. 현재까지 1,800명 넘게 신청을 했다. 6월 4일(화)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일반 2만 원, 저녁 1만 원을 할인해 준다. 마리아행전 회비는 일반 4만 원, 저녁 2만 원이다. 마리아행전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주일 서빙고와 양재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다른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리아행전은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거룩한 목마름’을 주제로 막 오른다. 12일 ‘마음이 가난한 자는(마 5:3)’, 13일 ‘긍휼히 여기는 자는(마 5:7)’, 14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마 5:6)’

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가 강의한다. 오후 영역별 강의도 이어진다. 12일 오후 김양옥 목사(등대교회), 13일 오후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가 강의한다. 집회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12일과 13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는 직장 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이 열린다. 김윤희 대표(FWIA)가 강의한다. 직장 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은 순예배 대체가능하다.

문의: 02-3215-3667/3201, 02-570-727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2,300명 동참

지난주일(19일) 실시된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행사에 온누리교회 성도 2,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이 작성한 후원금은 약 6억 원이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행사에 동참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며 “그 귀한 마음이 선교지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온누리 아웃리치 발대식

6월 19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본당

2019년 온누리 아웃리치 발대식이 6월 19일(수)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성령의 비람 온 세계 위에’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국내 및 해외 아웃리치 참가자들과 각 공동체 리더십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온누리 아웃리치 발대식에서는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 사역팀이 아웃리치와 선

교를 위하여 한 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안전한 아웃리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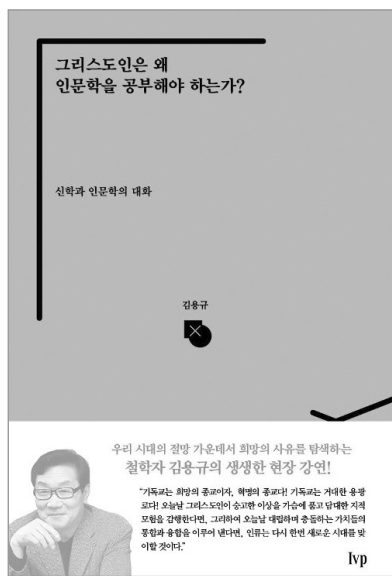
한편 올해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아웃리치 계획서를 관리시스템(2000.swim.org)에 입력해야 한다 <관련기사 4면>. 문의: 02-3215-3679

/ 김명선 기자 k4458@onnuri.org



책 읽어주는 목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김용규 저 | lvp | 8,000원

며칠 전 서점에 가서 인문학이야기가 재미 있을 것 같아 책을 집어 들었다. 일단 책이 얇아 마음에 들었고, 저자도 <철학카페에서 시 읽기>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김용규 작가라 갈등 없이 읽었는데 단순히 다 읽어버렸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힘들게 읽었던 수많은 철학과 기독교 교리, 역사 등이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흐름을 기독교 사상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단순히 철학과 역사를 정리한 것을 넘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하기도 해서 내게 감동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인문학하면 신앙과 별 상관없는 세상 학문, 또는 취미생활이라 생각할 지 모르나 사실 인문학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고, 세상의 흐름을 읽게 하기에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신학과 인문학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현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감히 영광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말은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인문학적 지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 없다면 그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다. 자유주의신학을 거부하며 신정통주의 신학을 시작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손에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 신문”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신앙을 흐드는 자유주의를 이겨내려면 세상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인

문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관심 없을 수 있다. 지식인들이라면 지금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바로 ‘호모데우스’ 즉,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이다.

이 개념은 히브리대학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가 명명한 것인데 생명공학, 로봇공학,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과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취득한 극소수의 부자들이 그리스 신들처럼 불멸, 행복, 신성을 누리며 사는 시대를 말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70억 인구들은 초인간들을 먹여 살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조종당하며, 밤만 축내는 쓸모 없는 계급, 곧 호모 유스리스(Homo useless)로 살게 된다. 이러한 조짐은 대자본과 결합한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세계 각처에서 실현되고 있다. 각국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AI(인공지능)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틈을 타서 신흥종교 ‘데이터교’가 발흥되었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신도를 가진 데이터교는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AI를 신봉하는 종교이다.

우리도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보고, 일어나자마자 보며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봐!”가 아니라 “구급에게 물어 봐!”라고 쉽게 대답하지 않나?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교의 신도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을 무작정 신봉하는 태도는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세상은 시대적으로 급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도전한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절하게 응전하며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왔다. 이번 변화와 도전의 속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과격하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상은 기술문명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에 깊숙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며, 허망한 것들에 집중하게 해서 인류를 파괴하고 멸망하게 할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은 취미생활을 넘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인문학이 맹목적이 되지 않게 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인문학을 공부하고,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허원희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꼭 크리스천끼리 결혼해야 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의 결혼과 가정에 분명하게 나타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C.C.C.에서 활동하던 시절 나의 멘토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고 자주 노래하곤 했다. 그 말만큼, 데이트를 하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될 터이니 믿지 않는 상대와 만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난 믿음에 있어서 초보였기에 이 주제가 항상 신경 쓰였다.

“꼭 크리스천끼리 결혼해야 하나요?” 만약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순수하게 지적(知的)이고, 신학적인 궁금증으로 질문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아주 멋진 불신자를 만나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싶어진 경우의 유형이다. 세 번째는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의 유형의 사람이다. 요점은 이 질문이 어떤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

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창세기 1장 26-2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의 법에 따라 창조물을 다스림에 있어 파트너십이 필요하기에 결혼을 디자인 하셨다. 기독교 결혼관은 ‘서로의 교제’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상대와의 결혼관계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에 지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지 않았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했다(신 7:3-4).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 이 금지령은 구약 전체에 반복해서 뚜렷하게 나온다. 실제로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 솔로몬과 아합 같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몰락했다. 에스라 9-10장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에서 이 금지령은 어떻게 되었을까? 신약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더욱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고전 7:39).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고후 6:14).

고린도후서 말씀이 비단 결혼에 관한 것만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를 구분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주고 있다. 게다가 신약에서는 결혼을 그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림을 그리는 파트너십(엡 5:21-33, 계 21:9-27)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두 명의 예술가가 하나의 캔버스에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려는 것과 같다. 한 명은 교회와 예수님을,

다른 한 명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려 하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에 각기 다른 보물을 가지고 있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서약을 깨거나 무효화하지 말라고 말한다. 크리스천은 결혼생활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전 7:12-14). 실제로 결혼과 가정은 믿음의 배우자로부터 거룩해진다. 더 나아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모범이 되면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벧전 3:1-2).

“꼭 크리스천끼리 결혼해야 하나요?” 확실하게 “그렇다”이다. 그렇긴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다른 우리 모두의 결혼과 가정에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송재호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기도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환경을 예로 들기 쉽습니다. 출석하는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 가서 자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어서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이기에 처한 환경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렵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로 드는 모든 이유들과 정반대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바벨론에서 자라며 고향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하루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궁 학교에서 자라나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이방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도 불신자였습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총리로서 일하기까지 많은 사람이 그를 질투했고, 모함했고,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120명의 장관 가운데 세 명의 총리,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정받는 총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출신인 그가 바벨론의 관료로 일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했고,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다니엘은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불신자들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모든 이유들을 다 모은 환경이 바로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로 승리했고,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악하고, 세상적이고, 불신자들의 문화 한복판이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동행하는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심으로 역사의 미래를 보게 하였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에 이어 바벨론을 통치하는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게 될 때

까지 다니엘은 계속 바벨론의 중요한 관리로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는 다리오 왕이 1년째 됐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장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재를 뒤집어쓰고, 굶은 배운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 다른 전심으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바벨론 왕궁 학교에서 우상과 관련된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부터 그는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그를 모함하고 고소하는 바벨론 관리들에 의해 사자 굴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니엘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습관을 좇아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재를 뒤집어쓰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금식하며, 재를 뒤집어쓰며, 굶은 배운을 입고 절박하게 특별하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울이 굶은 배운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2-3절).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서책을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누군가 받아 적었고, 그것을 또 누군가 필사했고, 그것이 전해져서 다니엘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 서책을 읽다가 놀라운 구절을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렘 29:10).

이 구절을 보고 다니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심판을 행하시면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70년이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죄로 가득 차서 심판을 받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가

지 길이 있다. 하나는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살길이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가라. 저항하지 마라. 민족주의적으로 저항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다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도망가면 전염병으로 죽는다. 살길이 없다.”

실제로 이 세 갈래 길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도망가다 죽고, 남아서 싸운 사람들은 싸우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왜 너희를 잡혀가게 했는지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훈이나 징계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목적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적은 것을 보고 놀라서 그때부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이 다 이뤄질 텐데 그 약속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70년 만에 돌아오는 계획이 실패할까 봐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순간 기도의 중요한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깊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다니엘이 느꼈던 충격, 기도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비상한 결심과 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공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공부의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입니다. 많이 아는데 깊은 기도가 없다면 헛되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일어난 기도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진정한 회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왜 포로의 기간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포로의 기간을 70년이나 주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철저히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다니엘일 것입니다. 영적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계속 회개합니다.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은 회개와 상관없이 삽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절박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시여’”(4절).

회개는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2019 여름 아웃리치를 앞두고 2000선교 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아웃리치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복음 들고 산 넘고 바다를 건넌다. 여름 아웃리치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고,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는 “기도가 아웃리치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아웃리치를 알고, 배우고, 안전에 유의할수록 의미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웃리치가 된다”면서 오는 6월 19일(수)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2019 아웃리치 발대식’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김홍주 목사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기도가 아웃리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아웃리치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교공동체입니다. 아웃리치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교회를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하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창립초기부터 국내외 아웃리치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열방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웃리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웃리치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웃리치에 참가하면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아웃리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혼자 된 것 같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질병, 추방, 비자문제까지 생기면 심한 정서적 위기감을 경험합니다. 선교에 대한 과업을 이룰 힘이 모자라는 생각도 드는데 바로 그때 아웃리치팀이 방문하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웃리치를 실시하면 주민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을 매개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1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는데 아웃리치팀들의 방문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웃리치팀과 함께 선교지에 들어가 주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선교의 돌파구를 마련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

아웃리치에서 사역과 현지인(주민)들과의 교제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현지인들(주민)과의 교제입니다. 아웃리치에서 사역에 집중하느라 현지인들과 교제하지 못했다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사역과 현지인들과의 교제가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웃리치에서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선교지를 경험하고, 현지인들과의 교제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과 웃으면서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는 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아웃리치팀은 늘 손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현지인들을 대해야 합니다. 종종 현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한 사역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면, 짧은 만남이라도 평생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선교지와 현지인들을 소중히 사람들로 여기고 품어야 합니다.

현지인들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서 사역지의 역사, 문화, 상황, 영적인 상태, 간단한 현지어 몇 개 정도는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정보는 인터넷이나 서적을 활용해도 좋고, 해당 지역에서 선교경험이 있는 선교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선교지와 현지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갈수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풍성한 아웃리치가 됩니다.”

아웃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웃리치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아웃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안전한 아웃리치를 할 수 있도록 외교부 해외여행경보를 기준으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웃리치 금지국가를 지정해서 안내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아직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된 아웃리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브리키나파소 사태에서 보듯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 국가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국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해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행 자제국가 중 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위해 찾는 곳이지만 특정 지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국가에 가게 될 때는 반드시 2000선교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아웃리치 관리 프로그램에도 사전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뒤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웃리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섬김이 선교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중종로공동체는 10여 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아웃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선교지의 꼬마들이 학생이 되었고, 중종로공동체의 후원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헌신한 이도 있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에는 영상, 일정, 사진 등을 많이 확보해서 2000선교본부에서 운영 중인 아웃리치 관리프로그램에 보고해주십시오. 그 다음 아웃리치팀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아웃리치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웃리치에서 깨달은 것을 삶과 연결시키십시오. 한국에는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지역의 외국인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아웃리치가 무엇이고 좋은 아웃리치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아웃리치는 성도들이 복음에서 소외된 국가와 지역을 찾아가 선교하고, 봉사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아웃리치는 성도들이 선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혼자라 아니라 여럿이 팀을 이뤄 영적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낮은 환경에서의 영적 도전은 때로 불편하고, 힘들고,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리치에 참가하면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웃리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연약함을 깨닫고, 서로가 성숙해지는 값진 경험 또한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 목적과 소명을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좋은 아웃리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아웃리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성도들과 아웃리치를 실시한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그 아웃리치를 좋은 아웃리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웃리치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의 열악한 상황을 직면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웃리치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준비가 핵심이자 필수입니다. 아웃리치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웃리치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딸 덕분에”

65세 이상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부모와 자녀 425명 참석 ... 152명 결신, 102명 세례 신청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 있다. 지난 20일(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 65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그것을 증명했다. 자녀들의 오랜 기도제목이었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꿈이 현실이 됐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게 됐으니 이보다 좋은 효도가 또 어디 있을까? 올해 행복드림콘서트에는 부모와 자녀 425명이 참석했다. 전도대상자 255명 중에서 152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102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신청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엄마, 내가 오늘 엄청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

집회 한 시간 전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난생 처음 교회에 온 부모들과 자녀들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접수처에서 테이블 배정을 받고 어머니께로 향하는 박준영 성도(서초B공동체)의 발걸음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박준영 성도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전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께는 꼭 전하고 싶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는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는 자리인 만큼 어머니가 꼭 그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박준영 성도의 어머니 김인순 어르신은 “아들이 즐거운 곳에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면서 “오늘 행사가 무척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 시각 본당에서는 행복드림콘서트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스태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드디어 행복드림콘서트가 시작됐다. 부모들과 자녀들이 손을 잡고 입장했다. 임성현 집사(경기A공동체)는 장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왔다. 장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싶어 서저 멀리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

“장모님이 교회를 가끔씩 나가시기는 하는데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봐야 천국이 있는지 알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오늘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장모님이 귀한 말씀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희와 함께 천국을 소망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임성현 집사의 장모 김두내 어르신은 신이 나셨다. “아들 같은 사위 덕분에 귀한 축제에 오게 됐다”면서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자녀들과 영원한 행복을

오프닝 영상부터가 감동이었다. 영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인사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미 부모들의 마음이 녹고 있었다. 게스트들의 멋진 공연도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행복드림콘서트 사회를 본 가수 이무송은 재치 있는 입담으로 한바탕 웃음을 선물했고, 남성 4

중창 CRUX의 공연과 토크쇼는 부모와 자녀들의 추억을 불러왔다. 가수 노사연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진짜는 지금부터였다. 자녀들이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그 영상에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고은아 권사가 시 ‘아버지의 눈물’을 낭송했다.

그 다음은 부모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시간이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복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영원히 보내기를 바란다”고 초청했다.

피날레는 자녀들이 쓴 편지낭독이 장식했다. 자녀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소망하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읽어드렸다. 서영석 성도는 고이 간직했던 마음을 부모님께 전달했다.

“제가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선택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양승란 성도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

“엄마아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동안의 삶이 치열했던 만큼 이제는 좀 쉬시길 바라요. 외롭고 지칠 때마다 부모님을 응원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는 자녀들의 진심에 부모들이 화답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로 답장을 대신했다. 결신카드를 작성하고, 부모들의 머리에 예쁜 화관도 씌워드렸다. 화관을 쓴 어르신들이 어린이처럼 행복해하셨다. 부모와 자녀가 열싸안고 서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천국잔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이날 구자엽 집사(고양은평공동체)의 장인과 장모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신청도 했다. 최은정 성도(서빙고 온누리교회)의 부모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딸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준 것을 계기로 신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고백했다.

행복드림콘서트 후속프로그램과 세례교육 및 세례식이 이어진다. 세례교육은 5월 29일(수) 오후 12시 두란노홀, 세례식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된다.

문의: 02-3215-3214

딸이 보낸 편지

엄마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의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환경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저의 초대에 응해주신 사랑하는 엄마아빠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나이가 벌써 오십인데 여든의 부모님을 모시면서 이제야 철이 드는 듯합니다. 남편의 아내, 세 아이의 엄마, 많은 학생들의 교사로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여든 되

신 노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 마디 자주 건네 드리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가득하건만 일상에서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더욱 부모님께 좋은 딸이 되고자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제 삶

에 유일한 친구 되어주신 하나님을 두 분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엄마아빠와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아빠,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 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은영이와 제가 두 분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물하고 아팠던 기억들을 예수님을 통해 깨끗이 치유 받고, 새 생명을 얻으시길 바라요. 쉽지 않은 기회를 허락해주신 엄마아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옆에 계셔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19년 5월 20일 큰딸 올림.

/ 최은정 성도(서빙고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온누리복지재단 봉사자들의 고백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온누리복지재단 봉사자들의 섬김을 보면서 떠오른 찬양이다. 1999년 설립된 온누리복지재단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특히 온누리복지재단 8개 산하 시설 봉사자들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따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계인옥 권사(사진 제일 오른쪽)가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감동이 밀려왔다. 섬기고 있는 봉사현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여기고 있다는 봉사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전율이 느껴졌다. 어쩔 그렇게 헌신적일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갔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다짐도 들을 수 있었다. 봉사자 한 명이 아니라 봉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마지막일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송현숙 집사(신용산공동체)는 노인들을 지극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 송 집사는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드리고, 말벗봉사를 하고 있다. 부모 같은 어르신들을 만나려고 매주 두 번씩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찾아간다. 매주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개원할 때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를 봤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봉사하려 갈 때마다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정도면 천사가 따로 없다. 송 집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목욕봉사는 건장한 청년이 감당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요즘은 기계를 사용해서 나아지기는 했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송 집사도 힘들고 쉬고 싶을 때가 왜 없었을까? 그럼에도 꾸준히 봉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르신들의 웃음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제가 씻겨드리면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시다가 나가실 때는 꼭 웃어주시거든요. 그 모습이 얼

마나 보기 좋은지 날마다 보고 싶단니까요?”

송 집사는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어르신들과 보내는 일분일초를 소중하게 여긴다. 어르신들이 언제 전국으로 떠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에게 더 큰 사랑을 드리려고 한다.

“하루는 목욕봉사를 마친 어르신이 ‘아이구 야 참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저도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르신께서 소천하셨어요.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더 많이 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팔십이 넘어도 봉사를 멈출 순 없다

계인옥 권사(충신교회)는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다. 계 권사 역시 노인이다. 팔십 세가 넘었다. 얼마 전까지 암 투병을 했지만 봉사를 멈출 수는 없었다.

“글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어떤 할머니는 글씨를 못 읽어서 버스도 못 타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도 글을 몰라 못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계 권사에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어도 아깝지 않다. 30년 교사 경력을 살려 직접 한글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셔서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용기 내서 찾아오신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한글수업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한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함께 간판을 읽으면서 연습을 했어요.”

계인옥 권사의 섬김 덕분에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혔다. 글을 읽지 못해 혼자서는 버스를 탈 수 없었던 할머니가 혼자 버스타고 시장에 가신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어르신은 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마음속에만 갇혀 간직하고 있던 순수하고 예쁜 말들을 시로 노래하는 어르신들도 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영은 성도(강남C공동체)는 변동코이노니아(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보호 작업장) 예손작업장에서 미술교사로 봉사와 있다. 예손화가들(발달장애인 작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일을 한다. 그는 대학시절 서양화를 전공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다.

“예손작가들의 그림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

요. 그들은 개성과 색깔을 뚜렷하게 갖춘 훌륭한 화가들이에요. 그들의 잠재능력이 작품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예손화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돼요.”

오영은 성도는 예손화가들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예손화가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며 보살핀다.

“그림에 재능은 있는데 다른 수업에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수업은 곧장 잘 따라오고 표정도 밝더라고요. 원래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수업 인원이 바뀌는데 그 친구를 제가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 친구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작품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예손화가들을 돕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 변동코이노니아 동행팀(김정숙 권사, 이지연 권사, 김수미 권사, 박현분 집사)이다. 동행팀은 매일 한 번씩 예손화가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 전시회를 보러 간다. 예손화가들이 동행팀이 방문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이다. 동행팀의 봉사는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손화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봉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손화가들이 먼저 생각날 정도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

“예손화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덩달아 행복해요. 그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어요.”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정호옥 목사는 봉사자들을 보고 있으면 꼭 고넬료(사도행전10장)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었듯이 온누리복지재단 봉사자들의 섬김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봉사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2-793-9655(온누리복지재단)

기관별 필요 봉사자

기관	봉사내용	일시
군포하나로복지재단청소년쉼터	쉼터(주방보조, 숙소환경정리), 검정고시반 학습지도, 청소년 이마용(월 1회) 관리 등	9:00~18:00 주중, 정기, 비정기적 봉사활동 가능
온누리요양센터	어르신 개별 말벗, 성경 읽어주기, 식사보조, 이마용 등	9:00~18:00 주중, 정기, 비정기적 봉사활동 가능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계목욕, 수요일배, 휠체어 청소, 주방봉사, 카페 업무 보조 등	기관 문의(02-3407-277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폰 1:1 교육, 어르신 맥 가정방문, 복지관 행사 대코레이션 및 사전준비 등	기관 문의(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설거지, 저소득 어르신 방문, 저소득 어르신 일반찬 배달 등	기관문의(02-3474-6080)
변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그룹 미술지도, 야외활동, 생일파티, 점심 그룹 초대 등	월~금 10:00~15:30 수시 또는 정기적
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 단기강좌, 전문상담, 주거환경 정리 등	기관 문의(02-703-6011)
서울특별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취약 계층 말벗 및 환경미화, 특별보호대책 기간 내 업무보조 등	기관 문의(02-3789-5119)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를 생활화하자!

거짓 속의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가정

가정예배 양식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191(통 427), 키즈벤처 12집(QR코드))	다같이
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예레미야 9장 5~9절(6월 1일 QT본문)	다같이
설교	'거짓 속의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가정'	말은 이
말씀과 일상 나누기		다같이
기도제목 나눔과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빛 되신 주(키즈벤처 12집)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여는 말

짐 캐리 주연의 '라이어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능한 변호사였던 주인공 플레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거짓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서 단순하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 시작한 거짓말이 이제는 거짓말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플레처는 가족과의 관계, 회사에서의 관계 등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거짓으로 대합니다. 아들의 생일날에도 플레처는 어김없이 거짓말로 자신이 아들의 생일을 못 챙긴 상황을 모면합니다. 아들은 하나

님께 생일소원으로 아빠가 하루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영화의 설정대로 기도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주인공 플레처는 거짓말을 못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거짓으로 둘러싸였던 플레처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족과도 이웃과도 변호사로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순간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치 못하게 하는 거짓말을 포장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정도니 말입니다.

본문

오늘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삶에 대해서 경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를 속이고 아무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회,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문화라고 지탄합니다. 거짓말은 죄로 연결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의 한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 심리적인 갈등의 구조가 생길 때, 진실을 피하고 현실과 타협하려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문화를 구축하고 살아갈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한 것들은 헛된 우상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한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과 타협하며 안도감을 느끼고, 이웃들까지 속이게 됩니다. 8절 말씀처럼 그들의 혀는 이웃을 해치는 무기로 전락합니다. 이웃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우리는 거짓 신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부정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부모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맘몬주의적인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신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상대방보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를 알게 모르게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맺는 말

어두움은 빛이 없는 곳의 현상(어두움은 빛의 부재)일 뿐인 것처럼, 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의 현상(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 돌아보며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돌아키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거짓된 세상에서 씻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김성욱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우리집 가정예배

퀴즈가 있는 장원규 집사네 가정예배



장원규 집사, 김길선 성도와 자녀들.

장원규 집사, 김길선 성도 부부(송파A공동체)는 자녀 한나(10살), 은혜(8살), 요한(5)과 매

일 저녁 8시 퀴즈가 있는 가정예배를 드린다. <생명의 삶>, <예수님이 좋아요 (고학년, 저학년)>, <예수님이랑 나랑>과 같은 QT지를 활용하고 있다. 예배 시간은 평균 20~30분이다.

“자녀가 세 명이다 보니 사건사고가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배 시작부터 서로 자기가 원하는 찬양과 율동을 하겠다고 다투기 일쑤였어요.”

가정예배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장 집사 부부는 자녀들이 가정예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다. 자녀들에게 딱 맞는 예배로 꾸며갔다. 세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뛰어놀 수 있는 시간도 만들었다. 예배가 끝나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거나 외출을 하기도 한다. 가장 큰 특징은 퀴즈다. 설교나 말씀풀이를 하는 대신 퀴즈를 활용

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장 집사 부부가 고심 끝에 찾아낸 탁월한 방법이다.

“말씀을 읽고 간단한 질문을 던져요. ‘예레미야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우상을 잘 섬겼나요?’ 라고 물으면 자녀들이 신나서 손을 들고 대답을 해요. 퀴즈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장 집사네는 약 1년 전부터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열매가 맺혔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더 잘 감당하게 된 것이 가장 좋았다.

“예배 시간에 자주 다투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꾸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어려운 죄인인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

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장원규 집사는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데 가정예배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고도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으로 신앙을 계승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방법은 가정예배가 최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하나 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일구면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계승하지 않겠어요?”

장원규 집사, 김길선 성도 부부는 아직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가정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정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VIII)

진리와 민족 위한 순교적 자기희생적 삶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3.1독립만세 운동은 일본 헌병경찰들이 반일 민중들에 대하여 강력한 박해, 체포, 구금, 고문, 심지어 살해까지 감행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해졌다. 위태로운 처지에서 우리 선조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은 자기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위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이다. 민족 대표들이 33인 서명록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은 살생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며, 일제 통치하에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비록 외래 종교였으나 신자들과 지도자들은 3.1운동 참여를 통하여 자기희생적 정신과 삶을 보여주면서 기독교가 박해의 종교요, 민족을 이롭게 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순국(殉國)적 정신이 요망된다.

이회영 기독교 가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독교 지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서 잊지 말아야 할 자가 한일강제병합이 되자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이주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만주 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과 그 가문이다. 평소 개방적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남달랐던 선생은 명예나 지위 욕심이 없어 관직을 거부하고 민중의 계몽과 기율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힘썼다. 본래 상당한 영향력을 소유한 명문가였다 재산도 어마어마했다. 당시 이회영 선생의 집안이 독립운동을 위해 급하게 처분하고 간 재산이 약 40만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650억 원에 이르고, 당시 시세로 소 13,000마리를 살 수 있었던 거금이었다. 선생의 7형제 중 6명과 일가 50여 명은 경술국치 전후로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넘어가 일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 엄청난 재산도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학교를 세우느라 8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해방 후 조국 땅을 다시 밟았을 때 살아남은 가족은 20여 명에 불과했다. 이회영 선생과 함께 만주로 건너갔던 6형제 중 살아서 광복의 기쁨을 마주한 이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밖에 없었다. 만주로 넘어가기 이전에도 선생은 활발하게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898년에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민중계몽 운동을 벌였고, 안창호 선생, 전덕기 목사와 함께 비밀결사단체 신민회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이상설 선생, 이동녕 선생을 통해 서전서숙 설립을 돕고, 상동교회의 상동 청년학원 개설에도

함께하는 등 민족 교육에도 땀을 흘렸다. 만주로 넘어간 이후 선생은 주로 무정부주의에 근거해 무장독립운동 활동을 펼쳤다. 재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항일구국연맹 등을 조직하고,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넘나들며 독립의지를 알릴 의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청산리전투의 주역들을 배출했던 신흥무관학교도 선생이 만주에 남긴 흔적이다.

이회영 선생 일가를 독립운동을 이끈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실천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 그는 유력가문의 자제였음에도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 않고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다니던 상동교회를 다녔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신앙을 키웠다. 65세에 일경의 모진 고문으로 눈을 감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다. 평생을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고, 영향력도 상당했음에도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장을 맡은 일이 없을 정도로 겸손했다. 상동청년회와 함께 민족정신을 품은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상동청년학원 학감(교감)을 맡았고, 상동교회 담임이었던 전덕기 목사와 함께 상동파로 불리며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단체 신민회의 창립 역시 이회영 선생이 속한 상동파와 크리스천들이 중심이었다.

공산주의 세력과 단절

일제 강점기에 의한 국권 침탈과 수탈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사상이 민족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에 스며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했다. 볼셰비키 혁명 직후 1918년 이동휘를 중심으로 소련의 도움을 받아 한인사회당이 만들어질 때 강령 제1조가 ‘사회주의 국가를 조직한다’였다. 파리강화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고 윌슨의 임기가 끝난 후 미국의회는 국제연맹에 가입하지는 않건 불결시킴,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되돌아갔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가자 1919년 3.1운동과 같은 시기에 소련 레닌의 콰민테른(공산당 국제회)은 민족자결론을 앞세워 약소민족들을 공략, 공산주의 수출에 나선다.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한국 대표단 52명이 몰려갔다. 김규식과 여운형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김규식은 대회 연설에서 “극동의 피압박 인민과 혁명 조직은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만세!”라고 외쳤다. 이들은 레닌의 거역공작음을 받아 자유 민주 세력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임정을 장악하려 한 것이다. 그때부터 한민족의 좌우 이념 투쟁이 시작되었다. 1923년에는 임시정부가 공산주의로 기울기도 했다. 상해에서는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지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산주의자인 통합임정 국무총리 이동휘는 정무회의에서 “나는 그 대통령(이승만) 밑에서

일 안 하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신채호와 박용만 등은 이승만을 반대하고 베이징으로 떠났다. 민족주의자 이동녕은 안창호에게 임정을 필리핀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1923년 1월 3일 국민대표회의를 열어 임시정부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는 ‘개조파’와 정부를 아예 새로 만들자는 ‘창조파’가 대립했다. 김구는 국민대표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6월 6일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취임한 김구는 “대표회 자체의 즉각 해산을 명한다”는 내무부령 1호를 공포했다. 이즈음 이승만이 발표한 ‘공산당의 당부당’ 논문(1923)은 마르크스 공산당선언과 레닌의 폭력혁명선언에 정면 대항하는 세계최초의 ‘반공선언’이었다. 공산주의는 러시아, 중국, 일본을 통하여 세 가지 경로(이루쿠츠크파, 상해 또는 서울파, 일본 유학생파)로 침투했고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 조직에 성공하였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독자적 민족운동을 형성하였다. 조선공산당은 1925년 10월 합작운동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 반기독교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조선청년총동맹 산하의 ‘한양청년연맹’이라는 좌익단체가 1925년 11월에 8일 동안 열린 ‘제2회 조선주일학교대회’에서 반기독교강연회를 열었다. 조선공산당은 1년 뒤인 1926년 12월 긴급집행위원회를 열고 성탄절을 ‘반(反)기독교날’로 제정하고 맹렬한 반기독교운동을 조직적으로 한다는 중대결의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로서 교회를 비판하였으므로 교회에 침투할 수 없었다. 오늘날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남북의 모습이 밤과 낮처럼 확연히 다르다. 공산왕조체제를 지닌 북한은 반(反)역사적이다. 북한의 선전 매체 ‘민족끼리’는 “3.1 민족 봉기는 외세(外勢) 의존에 물젖은 상층부들이 구차스러운 방법으로 독립을 얻으려고 시도하다 실패했다”고 깎아내렸다. 김일성 중심 사관(史觀)대로다. 세습 독재로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오늘날 북한 사회는 100년 전 일제 군국주의 노예의 사슬을 깨뜨리려 꺾기했던 3.1절 선조들이 외쳤던 민주 자유 평등 국가의 모습일 수 없다.

교회의 공신력과 사회 지도력 위상

1919년 일본총독부의 한국 교회 탄압은 교회를 말살하기는커녕 오히려 급속한 성장을 초래하였다. 3.1운동 후 대중들은 물론 양반계급과 지식인 계층까지 교회를 쳐다보고, 교회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인정했다. 교회가 항상 민족의 편에서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기독교는 교회라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으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언급한대로 기독교 인사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애국자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당시 국민들은 3.1운동에 참가한 기독교인들이 나

라와 민족을 위해 당한 엄청난 박해와 희생을 목격하고 이들을 영웅시하고 순교자로 생각하였다. 기독교는 여태까지 외래 종교라는 멸시의 대상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민족에 독립을 가져다주는 선한 종교로 여기게 되었다. 민족 대표 33인을 배출한 천도교·기독교·불교는 조선시대에 배척받거나 천시됐다. 하지만 이들 종교는 민족운동의 대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관리와 양반 출신의 인물들이 근대화와 교육과 의술(醫術)을 가져온 기독교에 입교해 기독교는 근대적 국민이 주도하는 종교 단체로 변모했다.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기독교 단체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보통학교와 중학교·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 일본과 중국 등지의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서구의 근대적 기독교 사상을 수용했다. 지역적으로는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 지역 출신이 많았는데 이 지역 국민 중에는 ‘자립적 중산층’이나 자본가 기독교인들이었다.

오늘 기독교 인구는 20%에 육박한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빈약하다. 안타까운 현상이다. 당시는 독립운동이었고 일제의 총칼에 의한 박해가 있었으나 이를 감수하고 한국 교회는 참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적 참여(반동성애, 반낙태 운동,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지원 운동 등)에서 당시의 어려움이 없으나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신뢰도에서 당시보다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된다.

한국 교회의 하나 됨 실현

3.1운동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실현하였다. 한국선교 초기에는 장로교와 감리교 두 선교회는 하나의 한국 교회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교파주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각기 자기 교파의 확충을 위하여 경쟁했다. 그러나 3.1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는 하나라는 의의(意義)가 다시 표면화되었고 실현되었다.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는 3.1운동 봉기를 오산학교 교장인 기독교의 이승훈과 의논했다. 장로교 지도자 이승훈 장로는 감리교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대답하고 실천하였다. 그래서 3.1운동은 어느 교파가 주도권을 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33인 독립선언서 서명자들 가운데 기독교 대표자는 16명(장로교 7명, 감리교 9명)으로 함께 민족의 대표자로 추앙받게 되었다. 3.1운동 참여에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하나가 되었다. 북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의 네트워크를 통해 33인 민족대표 가운데 16명이 가담했으며, 교회와 학교에서 인적 자원을 정교하게 동원해 만세시위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3.1운동 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각기 교파의 주도권을 추구하는 교파주의 교회로 선교활동했으나 3.1독립선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민족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장로교와 감리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함께 독립만세에 참가하여 민족의 자존감을 드러내었고, 일제 헌병 경찰로부터 박해받고 피해를 함께 입었다.

3.1운동과 한국 존재 국제사회에 알려짐

일본의 국제외교로 인하여 한국민족의 존재와 독립 권리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졌다. 이때 한국 교회는 기독교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해외로 나간 한국 주재 선교사들과 YMCA운동 지도자들, 국제선교협의회, 세계주일학교연맹 등 국제 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해외에 나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3.1독립운동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해외에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 교회 선교사들은 국권이 상실된 식민지배 하에서 한국민족의 존재와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였다.

3.1운동은 일본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는 것에는 실패했고 교회는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와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는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는 미국 및 캐나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독립시위에 나선 군중들을 다루는 일본경찰의 비인간적 야수적 방법은 전 세계 언론과 양심의 규탄 대상이 되었고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을 경질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반도 통치에 대한 일본의 식민정책과 방법을 재평가하게 되었고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었다. 조선인들도 스스로 당시 세계 5대 강대국에 오른 군국주의 일본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1운동의 전 민족적 단결시위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민족을 위한 희생정신과 인내심과 나라사랑과 충성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3.1운동은 한 일강제병합 후 10년 동안 쌓이고 쌓인 민족적 수치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였다.

기독교 교단의 협력 및 타종교와의 공존

3.1운동은 종교운동이 아니라 애국운동이었다. 그래서 모든 종파, 즉 기독교, 불교, 천도교, 대종교 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3.1운동에서 일치와 협동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기독교인 장로교와 감리교는 전통종교인 천도교, 불교와 협력했다. 3.1운동 직전 단계에서는 평양의 선우혁과 서울의 이갑성에 의해 기독교 중심의 독자적 독립운동이 준비됐고, 1919년 2월 이승훈 장로에 의해 천도교와 불교가 합류해 거족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했다.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일본 도쿄 28독립선언 역시 주체는 학우회였지만 실체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3.1운동은 처음에는 천도교와 기독교에 의하여 따로 따로 추진되었다. 천도교의 경우 교주 손병희가 28선언의 사실을 듣고 이에 찬동했다. 그러나 그의 참모들은 천도교만으로는 동원력이 부족하니 기독교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당시 천도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한 이회영 선생(사진)과 가문.

신자 수는 무려 3백만명이었으나 동원력이나 조직력에서는 기독교보다 훨씬 약했다. 당시 기독교 신자 수는 234,703명이었으나 조직력이나 의식화 및 동원력에 있어서 천도교를 훨씬 능가했기 때문이다. 천도교측의 최남선은 기독교측의 이승훈을 만나서 공동운동을 제안하였다. 이승훈은 오화영, 박희도, 정준수 등 기독교 인사들과 비밀회의를 하여 “우리는 이 기회에 종교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자격으로 할 것이다”는 결정을 하였다. 기독교는 3.1운동을 초교파, 초종교적 이념의 민족 독립운동으로 간주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왜 타 종교와 함께하느냐’며 부정적인 분들도 있었지만 남강과 송암(松岩) 함태영(咸台永)이 설득하면서 앞장섰다. 남강은 기독교 신앙의 넓이와 깊이를 가진 분으로 타종교 지도자들을 포용한 큰 그릇이었다. 남강은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과 종교합작을 주도하였다. 3.1운동 막바지에도 다시 독립선언문과 독립청원문이 팽팽하게 맞붙어서 합작이 결렬 위기에 이르게 되자 이승훈, 안세환, 함태영 등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을 설득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선언쪽으로 규정하는데 성공하여 이로써 기독교와 천도교의 합작이 이루어졌다. 특히 “당시 3.1독립운동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제목을 ‘독립선언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 청원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독립 청원서’로 하자고 주장한 목사들은 일제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고 회초리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독립선언서’로 하자고 주장한 목사들은 ‘누구에게 독립을 청원할 것인가’라며 독립선언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이 논란에 있어서 남강이 선언문과 청원문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당초 독립선언문 발표 시기가 고종의 장례식 때문에 3월 2일이 추진됐지만, 그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천도교의 양보로 3월 1일이 결정됐다고 한다. 민족대표 33인 중 일부 목회자는 천도교와 함께 운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선언문 발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선언문에 서명하고 만세시위를 계속해서 독려했다. 대승적 참여였다. 당초 독립선언서 발표 장소로 탑골공원을 예정했지만 학생들이 모일 거라는 소식에 청년들에

게 닥칠 불상사를 막기 위해 태화관으로 급히 장소를 바꾸었다. 민족대표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양보, 배려를 숭상수범했다. 종교의 차이는 독립이란 대의(大義) 앞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다. 진정한 종교는 교리가 우선이 아니라 공동선이고 대의가 우선이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과 통한다.

인류보편주의 지향

3.1운동을 일으킨 우리 민족의 정신은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 독립과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고 나아가 인도주의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려는 정신이다. 독립선언서는 자주독립사상, 자유평등사상, 민족주의사상, 인도주의사상, 세계평화사상 등을 대외에 천명한 것이다.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것은 대일본정부에 보내는 통고문 성격이었으며 파리평화회의에 제출하는 독립청원서로써 조선의 자주독립사상을 기초로 명시한 것이었다. 3.1운동의 주역인 남강은 철저히 예수 정신으로 비폭력적 방법을 따랐다. 예수 정신은 독립운동의 방법론만이 아닌 그의 행동의 양식이었다. 예수 정신은 비폭력이 전술전략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이었고 원수 사랑이었다. 이승훈 장로는 민족주의를 넘어선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조선의 독립은 조선만이 아닌 일본과 중국까지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는 평화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비폭력은 원수까지 녹여내는 사랑이었다. 비폭력 사랑과 평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승훈 장로 같은 폭넓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천도교와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3.1독립선언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자결주의와 평화운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인류가 줄기차게 추구해온 생존운동이었다. 기독교는 타종교를 일반은총의 차원에서 타종교의 경건성과 도덕성을 인정한다. 인류보편주의는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은 인류보편주의와 부합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대속자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다.

비정치적이고 내세주의적 신앙으로

3.1독립 만세운동은 일제 경찰의 강제 진압에 의하여 좌초되었다. 한국 교회는 3.1운동의 실패와 좌절 후에 비정치적이고 내세주의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는 3.1운동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 독립의 서광은 보이지 않고 교회는 일제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고 독립운동은 실패와 좌절로 끝났다. 이러한 한계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정치적 운동을 통한 현재적 해결보다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1920년대 들어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종말론적 설교를 선호하게 되었다. 선교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보수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창립되고 지도받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내세적이고 보수주의적인 경향을 취해왔다. 당시 선교사들도 일본 총독부와와의 마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정치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비정치화 운동이 나오게 되었다. 이 운동은 1907년의 신앙대부흥운동에서 영적 각성운동, 성경 읽기 운동, 도덕운동으로 금주운동, 도박안하기 운동, 새벽기도회 운동, 사경회를 통하여 신앙부흥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때 김선주, 김익두 같은 대 부흥사들이 배출되었고, 1906년부터 1907년까지 2년 동안 교인이 200%이상 증가되는 부흥이 일어났다. 1907년 대부흥운동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지도자들은 독립협회 강제해산 이후 비밀결사조직인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평북 이승훈, 평남 안태국, 황해도 김구, 함경도 이동휘, 안창호, 전덕기), 1912년 105인 사건, 1919년 기미독립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운동을 신앙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일제의 강한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민족 독립운동을 신앙운동으로 간주하고 3.1운동에 전교회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3.1운동 후 독립운동에서 실패와 좌절을 맞은 이후 한국 교회는 정치적 활동에서 벗어나는 비정치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비정치화 작업의 일환이란 3.1운동 직후 장로교와 감리교는 대약진 운동으로 부흥운동을 하였다. 이때의 설교 내용은 “죄와 회개, 믿음과 장차 올 심판” 등이었다. 교회로 하여금 종말론적 전향으로 몰아간 것은 육중 신자들의 신비적 체험이었다. 대표적 예가 3.1운동의 33인 대표 중 한 사람인 김선주 목사였다. 그는 3.1운동 대표자로 독방에 갇혔고, 감옥에서 구약을 일곱 번, 신약을 세 번 읽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8백 번 읽어서 거의 암기했다. 석방 후에 그는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했고, 그의 계시록 해석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전전년주의 해석이었다. 그는 재림신앙을 강조하였고 예수의 재림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비정치화와 종말론적 신앙은 1930년대와 40년대 중엽 일제 말기에 이르기까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하여 박해를 받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박해의 암울한 시대를 통과해 나가는데 필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신앙적 형태의 한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계속)

특별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정서적 결속의 본질

최승구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시 68:6).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대에서 가족이란 좁은 의미로는 부부와 자녀들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결혼으로 가족이 된 배우자

의 부모, 형제자매(in-law)까지를 포함한다(여기서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집합명사적 의미가 강해 인간됨이 더 부각되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성앤드류장로교회 목사였던 존 호프만 박사는 가족을 육아용 모빌에 비유했다. 모빌은 여러 모빌들과 서로 연결되어 바람에 흔들리면 움직임이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는 엉켜서 풀기 어렵게도 되고, 끊어지게 되기도 한다.

가족도 모빌처럼

가족도 모빌처럼 각자 독립적이면서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전달한다. 한 사람의 불안정함은 모두에게 전달된다. 간혹 그 불안정이 심화되어 가족의 기능장애를 유발하기까지 한다. 불안정한 모습들은 상처, 분노같은 내면적 원인과 재정적 결핍, 육체의 질환 같은 외부적 원인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불안정을 겪는 가족은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며 어떤 경우든 회복과 치유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그 불안정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 뿌리를 알아야 치료나 개선이 가능하다. 문제의 뿌리를 깊이 캐나가면 결국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었음을 보게 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tree of knowledge)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를 공격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다.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창 2:23)이 “제게 주신 그 여자”(창 3:12)로 바뀌게 했다. 분열된 한 몸은 남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갈등을 불렀다.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 원가족의 경제, 문화적 배경 차이, 자기중심적 기호의 우선됨, 길들여지지 않은 본성적 기질, 습관의 차이 등이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에서 불거진 다양한 문제들도 결혼 초기부터 갈등을 빚는다. 재정문제는 늘 심각한 갈등을 부른다. 종교문제도 그렇다. 교단 선택, 교회



“결국 해법은 옛 자아를 철저히 못 박고,
빛이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결국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돌봐야 한다.”

선택, 봉사의 정도 등이 모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종교가 아예 다를 경우에는 그 갈등이 더 치열하다.

부모자녀 간 갈등은 또 다른 장르이다. 자녀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교육은 온 사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핫이슈다. 노부모의 거취문제나 가족의 질병 등도 쉽게 가족 간 갈등 주제가 될 수 있다. 영어권에 이런 속담이 있다.

“찬장 속에 해골이 있다.”

어느 가정이나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힘든 선교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삶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전투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는 결국 가족관계 안에서 합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숨길 수 없고 대면해서 맞닥뜨려야 한다. 가족이 함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조정하며 협의해갈 때 실망과 기대가 교차된다.

가장 우선적 핵심은 부부관계의 문제이다.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소개하는 해법들이 많다. 예를 들면 ‘결혼의 필수요소 6가지’, ‘결혼관계 강화법 5가지’, ‘좋은 결혼은 장례식과 함께 시작한다’, ‘감정적 외도의 7가지 징후’, ‘이혼으로 가는 12가지 습관’ 등이다. 부부문제 해결을 위해 출판된 서적들도 많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저자는 <사랑의 5가지 언어>의 게리 채프먼, <사랑과 존경>의 에머슨 에거리치, <결혼건축가>의 래리 크랩, <부부학

교>의 게리 토마스 등이 있다.

온누리교회에는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젊은부부학교, 아름다운동행 등 부부관계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도록 도와준다. 부부문제가 해결되면 가정 내 다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세속적인 요소들로 죄성이 또 다시 침투하기도 한다. 탐욕, 세상 자랑, 교만, 헛된 영광 구하기, 두 마음 품기 등으로 좌절과 요동하는 삶을 경험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과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위에 소개한 가정사역의 유명 저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후기 저서에서 초기와는 다르게 영성이 해법임을 소개한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갈등이 영적전쟁임을 발견하고 영성 회복에 초점을 둔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갈등을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전쟁으로 보는 것이다. 죄인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임에 눈뜨게 된다. 해법은 옛 자아를 철저히 못 박고, 빛이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결국 갈등의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돌봐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된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딤후 5:8).

가족을 돌보는 일은 육체적, 물질적, 외형적 돌봄뿐만 아니라 그 돌봄의 뿌리가 되는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세상이 물질 중심, 개인주의화 되어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행함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건강한 가족관계의 본질은 믿음,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을 잘 돌보려면 모빌을 연결하고 있는 줄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 우선 정서적 결속으로 가족들을 강력하게 이어줘야 한다. 줄이 강력하면 엉켜도 풀기 쉽다. 만약 줄이 끊어지면 가족과의 하나 됨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족공동체에서 떨어진 외로움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세상에서 악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 간의 강력한 정서적 결속은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넣어주면서 악에게 승리하게 한다. 이러한 결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일상의 평범한 대화시간 갖기, 외식이나 여행, 상대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격려와 칭찬,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등이다. 무엇보다 가정예배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특별히 가족들이 솔직하고 친근한 나눔을 통해 이해하고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고 자신감도 갖게 된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지어진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 가장 건강한 가족이다.

건강한 가족관계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은 보면서 배운다. 배운 대로 행한다. 부모는 삶에서 절제 없는 욕심스런 모습이나 지나치게 세속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부모가 실생활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의 권위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울 수 있다. 혹 그런 건강한 가족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시 68:5b),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엡 2:19).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정서적 결속의 본질은 믿음이며, 그 내용은 아버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7).

온누리M센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이주민 정착 및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

온누리M센터가 제12회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19일(주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온누리M센터가 안산시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정부로부터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아주 뜻 깊은 상이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는 “이 표창은 그동안 온누리M센터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스테프들에게 주신 상”이라며 “앞으로도 온누리M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제12회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가 대표로 상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한국 교회의 과제’

공동세미나 6월 1일 오후 2시 양재 화평홀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기독교 학술원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한국 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연다. 6월 1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동세미나에서는 정일웅 전 총장(총신대) ‘서독의 잘츠기터 인

권 기록소의 역할’, 임종현 박사 ‘국제인권단체 공조의 방안’, 주도홍 전 부총장(백석대) ‘북한인권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유은상 박사(베를린 자유대학), 조은식 교수(숭실대), 안인섭 교수(총신대 신대원)이 토론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주 복음화 전도대회’ 개최

복음의전함, 6월 1일 제주도, 2일 서귀포시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단법인 ‘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이 제주성시화운동(대표회장 박명일)과 함께 ‘2019 제주 복음화 전도대회’를 개최한다.

2019 제주 복음화 전도대회는 6월 1일 제주영락교회(제주시), 2일 법환교회(서귀포시)에서 열린다.

전국 각지 교회와 성도들이 대거 참여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복음광고 전도지를 전달할 예정이

다. 1일 오후 2시 제주영락교회에서 연합집회를 한 다음 제주 시내 전도에 나서고, 2일에는 법환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서귀포 시내에서 전도한다.

복음의전함은 ‘대한민국을 전도하자’를 주제로 지난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전도캠페인을 벌였다. 제주도는 3차 캠페인 지역이다.

문의: 02-6673-0091

/ 정현주 기자

재정국 팀장 간사 모집

안수집사 이상
관련 업무 유경험자

온누리교회 재정국 팀장 간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온누리교회 안수집사로, 신실하고 성실 일조 생활을 하고 있으며, 회계업무에 능통하고 금융기관 혹은 기업 재무관리 유경험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앙간증문 포함)이다.

접수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메일: changh58@onnuri.org

문의: 02-3215-3647

온누리 아트비전 ‘고흐’ 특강

5월 28일 서빙고 한동홀

‘감자 먹는 사람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자화상’ 등의 대표작을 남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알아보는 흥미로운 세미나가 열린다. 5월 28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신관 지하1층)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는 ‘빈센트 반 고

흐’ 특강이 바로 그것이다.

온누리 아트비전에서 준비한 이번 특강에서는 <말씀이 들리는 예술산책> 저자이자 그림 들려주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최정주 권사(이수공동체)가 강의한다.

문의: 010-8516-7304

의료선교팀(CMN) 2019 아웃리치 일정

팀명	일정	나라	모집 분야	문의
마하나임	7월 21일~27일	몽골 울란바토르	내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약사	010-3326-8058
BEE	7월 23일~28일	인도네시아 롬복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약사, 간호사, 미용	010-9083-4196
마노아	7월 17일~22일	캄보디아 스렝마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간호사, 약사	010-3387-7764
드림	8월 9일~14일	네팔 카트만두	안과	010-5663-1921
라파	7월 12일~19일	네팔 고흐발	산부인과, 치과, 약사, 미용	010-9990-2875
토보	7월 24일~29일	몽골 울란바토르	의사, 한의사, 치과, 간호사	010-3778-0776
살롬	7월 20일~25일	필리핀 보홀	치과, 외과	010-4739-8474
시온	7월 6일~14일	코트디부아르	치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간호사	010-3388-5331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5651	김혜원	SNS	1135702	박원지	하늘	1135732	나덕남	공동체 없음	1135765	이은정	관악금천
1135652	배수인	SNS	1135703	이 산	하늘	1135733	양정국	관악금천	1135766	신다슬	W
1135653	김민지	SNS	1135704	권학민	하늘	1135734	안정화	마포	1135767	박은지	W
1135654	박솔기	SNS	1135705	이경민	하늘	1135735	김소현	일산	1135768	고영미	서초B
1135655	김성범	SNS	1135706	임도희	하늘	1135736	김인성	허브	1135769	이동희	S브릿지
1135656	장종우	SNS	1135707	김의림	하늘	1135737	유재아	Gil	1135770	한희경	송파A
1135657	윤주하	SNS	1135708	박동영	하늘	1135738	장현희	Gil	1135771	이미정	서초D
1135658	이재영	SNS	1135709	민세희	하늘	1135739	이주연	Gil	1135772	황장승	OCC
1135659	김혜인	SNS	1135710	이종원	강남B	1135740	이승배	인천 소망	1135773	박은주	강남A
1135660	지승희	SNS	1135711	서윤재	S브릿지	1135741	김강범	서초A	1135774	김정후	성동광진
1135661	김현주	경기A	1135712	하임옥	서초C	1135742	허유나	영등포구로	1135775	조용구	성동광진
1135662	장영자	서초A	1135713	김현주	J4U	1135743	신대용	여호수아	1135776	최재수	양지 동누리
1135663	박윤선	SNS	1135714	김정수	J4U	1135744	정하나	여호수아	1135777	박병관	수원 동누리
1135664	이영희	강동 말씀	1135715	이정민	J4U	1135745	박신애	여호수아	1135778	정은경	분당A
1135665	유희형	강동 말씀	1135716	윤여정	J4U	1135746	임대규	여호수아	1135779	송은도	남양주A
1135666	백지숙	경기A	1135717	조상배	J4U	1135747	김수민	여호수아	1135780	염미숙	김포
1135667	추신혜	고양은평	1135718	백찬미	J4U	1135748	윤형석	여호수아	1135781	장현호	관악금천
1135679	홍정민	양재	1135719	강승우	푸른누리	1135749	강하정	여호수아	1135782	이현우	신용산
1135680	계영수	중종로	1135720	양 광	대전중국어예배	1135750	김주희	여호수아	1135783	김숙경	분당B
1135688	이동규	부천 믿음	1135721	안석영	수원 HIS	1135751	박시원	여호수아	1135784	김용화	하나
1135693	임주연	남양주A	1135722	한상연	J4U	1135752	황승호	여호수아	1135785	유선미	강남B
1135694	김재현	하늘	1135723	조태중	J4U	1135753	김지호	허브	1135786	홍기영	Pole2
1135695	김내진	하늘	1135724	권은진	J4U	1135754	차운근	푸른누리	1135787	김래경	관악금천
1135696	박예주	하늘	1135725	서선희	J4U	1135755	임은채	강동 믿음	1135788	정승혜	요שב
1135697	유예림	하늘	1135726	나대균	강서	1135760	이현애	신용산	1135789	유다영	인천Web
1135698	황유림	하늘	1135727	이경희	부천 희락	1135761	서혜원	허브	1135790	안 열	인천 소망
1135699	장주아	하늘	1135728	이상용	인천 소망	1135762	배태랑	허브	1135791	전은경	경기A
1135700	김수빈	하늘	1135730	권혜영	수원 복누리	1135763	한정우	허브			
1135701	노민정	하늘	1135731	왕 옥	대전중국어예배	1135764	이예별	허브			

서빙고 5월 만남의 잔치

날짜: 5월 26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 20분(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 2층 시온홀
3월 14일~5월 8일까지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손옥영	임형빈	유재관 이은숙	성북 김연수 손하늘	여의도 김민철 이성일	이촌 위해님 임우빈	한강 박지호 복유정
강촌 노태승	김포 문화자	마포 박현주	안경자 황성혜	영등포구로 김영숙	일산 김기남	OCC 차원정
도상목 이성주	이상엽	양효전	신용산 곽현진	서 해 이승훈	반선정 정석원	최지영
차유미	동대문중앙 김선옥	서대문 김대일	광화문 김택진	정성호	황찬희	
고양은평 김상민	김하나	김도화	김인교	김형태		S브릿지 권우준
김지영	김화평	박성호	김형태	손정성		김서연
김한주	라성희	박주형	원주희	원주희	용산 이충복	김영미
이상흠	이주희	정광진	정해진	한규일	이치안	서정원
	성동광진 윤지영	최미애	황상준	양천 김민지B	이수 안영희	정순희
관악금천 김민선	이승경	서용주				

세례자명단

서빙고 김덕희 700529 김상민 710301 김정윤 670924 김지연 731212 김지영 710126 이현정 770216 장보미 860528 채송화 820519 천승건 910214 최병룡 811030 한성란 600620	신데이비드승준 노현주 윤현우 180913 윤여상 설교은 이시은 180622 이재규 송 희 정하은 170512 정진호 이주현 최서현 180221 최 훈 임경희	김인식 김현주 나주원 180308 나준석 김나현 오지성 171227 오상훈 유현석 옥하은 180612 옥정철 정하나 유태규 181008 유성은 조다현 이서우 180622 이건우 김한주 장예안 171006 장재훈 강은우 전아린 170922 전병근 윤선영 전정혁 170922 전병근 윤선영 정소이 180527 정규석 전근영 조예지 180310 조용남 이진희 최소은 170619 최승우 송경화 한사랑 180619 한선희 이미소	<대학청년> 허브 강현욱 960923 김명기 990225 인수지 940316 일교 신동원 970702 이재근 951025 하늘 김경태 940918 SNS 문영걸 890530 유아 김하은 180624 김희석 김민경 김하을 180624 김희석 김민경 Pole2 연한준 000118
---	--	---	--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이현정 성도(부천온누리교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무난한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광고를 접했을 때도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으니까’ 하고 넘겼는데 계속 광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석하게 되었다.

다양한 연령대와 각각의 사연을 가진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들이 참 아름답고 가치 있게 느껴졌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부부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같이 살면서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을 할 것인지 상기시켜 준 부부 대화 강의는 참 유익했다.

жат은 야근으로 대화시간이 부족했던 우리 부부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거니 하고 물어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볼 수 있는 계기였다.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고 말할 때 사랑이 배가 되고 서로의 감정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가게도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 배우자는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고치기 위해 하나

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했다.

대를 이어온 악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새 생명으로 이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었다. 우리 부부가 크리스천 3대 가정임을 감사드리며, 이 영적인 흐름을 자녀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고,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3주 동안의 과정은 의미 있고, 배우자와의 특별한 시간이었다. 배우자의 장점과 자랑거리를 써 내려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셨구나’는 생각이 들어 참 감사했다. 평생 이 보석이 빛을 잃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부부데이트를 통해 젊었을 때의 열정과 애뜻함이 살아나고, 아이 없이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낸 것도 참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이에게 집중했던 시간이 이제 부부를 위한 시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부부는 자동차를 정비하고 깨끗이 세차하고 사랑이라는 기름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켜시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서 앞으로의 여정을 달릴 것이다.

■ 서초D공동체 ‘1다락방 1사역’ 간증



/ 신지원 집사(서초D공동체)

정말 큰 행복과 보람

서초D공동체는 매주 화요일 탈북민 학교 ‘우리들학교’를 방문해서 식사봉사를 하고 있다. 남편이 다락방장으로서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사역에 참여하다가 우리들학교 선생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에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

처음 사역에 참여했을 때보다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활기차졌다. 선생님들도 많이 늘어났다.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다. 아이들이 탈북하면서 겪은 아픔이 많다. 그래서 때로는 투박하고, 거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학교 선생님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신다.

서초D공동체에서는 다락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았는데 쉽지 않았다. 서초D공동체에는 자녀들이 어리거나 신혼부부인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탈북민사역과 연결됐다. 처음에는 우리들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민학교에도 많이 갔다. 다른 학교에는 이미 일꾼이 많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해 보였는데 우리들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열악하고 도움 사람이 부족했다. 그래서 매주 시간을 내야 한다. 평일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는데도 다들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양재 온누리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받아다가 우리들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배식하고 있다. 우리가 섬기기 전에는 우리들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밥을 했다고 한다. 이 사역을 하는 데 3시간 정도 걸리는데 평일에 그 많은 시간을 계속 내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서초D공동체 차원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2개 다락방이 연합해서 시작한 사역이 서초D공동체의 사역으로 확장됐다.

우리들학교 선생님, 양재 온누리교회 식당, 서초D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이 준비한 식사가 탈북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화요일에 메뉴가 훨씬 풍성하고 맛있다.

탈북한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그들이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를 소망한다. 더 많은 지체들이 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박관태, 정수경 선교사(몽골)

몽골선교를 위한 아가페병원

하나님께서 오랜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몽골선교를 위한 아가페병원의 기초설계를 마치고 7월 기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과 비즈니스 미션을 위해서 ‘몽한아가페’라는 법인이 한국에 설립 되었습니다. 저희는 몽골 의료선교를 위하여 세 가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병원, 지속 가능한 병원, 복음을 전하는 병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속가능과 재정자립을 위해서 병원진료 이외의 수익사업을 2년 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약품, 의료장비, 진료재료 등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이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도 지사개념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서 법인설립과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삼성동 사무실은 공유오피스로 열게 되었고, 의료장비 수출과 해외환자 유치라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주예수병원과 울산대병원과 업무협약

도 체결하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싸고 좋은 장비를 공급해서 몽골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한국에 보내 사전사후 관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실제 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전혀 경험도 없고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사업이 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병원의 기틀을 세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기도제목은 아가페 사역공동체에 새로운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정 선교사, 서 선교사님만 있었는데 이제는 열한 유닛 사역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오신 선교사들과의 동역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사역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의료선교사님들의 비자와 의사면허가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만난 하나님



/ 이승근 집사(경기A공동체)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paraphrase)

대학시절 동시통역대학원에 관심 있는 후배가 있어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 중에서 ‘paraphrase(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paraphrase’는 조금 생소한 단어지만 미국에서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말로 표현하다’는 뜻이다. 나는 이 글에서 paraphrase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나는 paraphrase를 생각하면 하용조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하용조 목사님은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해 주셨던 분이시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하신 분이셨다.

paraphrase를 온누리교회의 순모임과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순예배를 드리면서 paraphrase를 경험한다. 순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과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역

사하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 나는 이것이 각자의 삶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paraphrase라고 생각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자와 동반자의 나눔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소통한다.

세상에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다. 나눔, 구제, 선교 등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이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paraphrase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paraphrase가 건강하게 실천될 수 있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삶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다니엘의 기도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 지키지 않는 불순종,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 반역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6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10절).

이 회개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모든 징벌과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뒤집어 말하면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탓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며 주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십니다”라는 태도입니다. 7절 전반부에서는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13~14절).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우리를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모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길을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어떤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포로로 잡

혀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의롭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는 모든 변명과 합리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시며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철저히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다”고 고백하는 자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간입니까?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할 때 의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다니엘의 기도 후반부에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합니다. 다니엘이 회복을 간구한 것은 “이제는 잘 해보겠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인간의 서약이 아닙니다. 앞으로 순종하겠다는 결심도, 각오도 아닙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신 동시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붙잡은 것은 백성들의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취 다시 세워 주십시오. 내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뤄 주십시오! 내 하나님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곳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17~19절).

다니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우신 성품을 근거로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멸망 받아 마땅한 존재이나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일부분만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회복을 간구했다면 신구약 66권이 주어졌다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풍성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크고 두려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의 사랑과 약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용서하시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생겨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이나 수치, 부끄러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또렷이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약속을 체함하고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약속을 의지하며 더욱 힘써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홍보대행사 대표,
칼럼니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마지막 포로가 되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던 안드라스 토마. 그는 기구한 운명의 헝가리 군인으로, 모스크바 포로수용소에서 700km 떨어진 코텔리치 정신병원에 수감됐다. 그가 정신병원에 수용된 이유는 러시아말을 모르는 그가 이따금씩 못 알아들을 헝가리말로 중얼거리는 모습을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오인해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55년의 모진 세월이 흐른 2000년, 그는 오명을 벗고 조국으로 귀환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오랜 세월 학대와 신경안정제 투약으로 파괴해진 상태였다. 1등급 특진도 하고, 고향으로 귀환해 여동생의 보살핌도 받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한 많은 79세 생을 마감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한 말은 “거울을 갖다 주시오”였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폐인처럼 변해버린 노인의 모습은 그를 더욱 절망 속에 빠뜨렸을 것이다. 오랜 시간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던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을 찾았다는 것은 그래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어머니는 생전 병원과 약국 가는 날이 즐겁다고 하셨다. 대기석에 있을 때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 기분 좋아 처음에는 못들은 체하다가 늦게 대답한다고 하셨다. 어머니의 소녀 같은 고백 속에는 평생을 얹힌 종갓집 만능느리, 무심한 남편의 아내로, 끝없는 뒷바라지가 필요한 자식들의 어머니로 온몸의 진액이 마르도록 희생해 온 한국 어머니의 고달픈 삶이 배어 있었다. 친구들, 친목계조차 다 끊고 손자 양육을

위해 오로지 할머니로만 살아오셨다. 그래서 더 이상 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무척 허무하고 서운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여성은 거울을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동화 〈백설공주〉에서 아름다움에 집착한 마녀 계모는 거울에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최고라고 답해주지 않는 정직한 거울을 향해 분노한다. 그녀의 비교의식은 백설공주를 독살하려는 음모로 이어진다. 주변 사람의 정직한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편협한 성격의 독재자나 권력에 심취된 사람들은 정직의 거울 앞에 서는 걸 힘들어한다. 심지어 진실을 말하는 거울을 깨버린다. 그들은 아첨꾼들이 분절된 왜곡된 거울을 좋아할 뿐이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물속에 빠져버린 나르시스의 자기 도취처럼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정확히 보는데 결림돌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을 만큼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명경지수(明鏡止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중국 노(魯)나라에 왕태라는 학덕이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공자의 제자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자 공자가 제자들을 이렇게 타일렀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조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울 대신 비쳐볼 수 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가만히 정지(靜止)해 있는 조용한 물이리라.”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명경지수가 되어주는 참 벗이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거울을 인간이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신의 답을 얻기 위한 절차 즉, 신탁을 위해서나 혹은 미래를 점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굳이 점을 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심은 하루는 나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은 세월과 풍파 속에서 더욱 견고해진다. ‘최상의 거울은 친구의 눈’이라는 게일록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 자신의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은 성경 말씀이다.

거울 앞에서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덜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덜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덜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치원 팀장(010-3489-208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을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로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23기

일시: 6월 8일~30일(4주간 토 일 1박 2일)

장소: 양지 비전빌리지

신청: iSchool 홈페이지

회비: 가정 당 30만원(자녀 5만원)

문의: 윤석남 팀장(010-4427-5025)

식물건조기 기증 요청

목적: 캄보디아 교인들의 자립

모집: 식물건조기

문의: 2000선교본부(02-3215-3679)

QT 인도자세미나

일시: 6월 3일, 10일 월 10:00~16: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를

접수: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QT특목

일시: 6월 13일~7월 11일 매주 목

10:30~12:00

장소: 두란노서원 본사 1층 블레싱홀

(용산구 서빙고로38길 65)

접수: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 2020년 1월 23일~29일

문의: 010-4902-1022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향: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

CGNTV

🎧 가정의 달 특집 다큐

아가야, 엄마야

입양과 미혼모 사역을 통해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박대원 목사, 서지형 사모의 이야기

본방송 5월 2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재방송 5월 28일(화) 오후 10시 50분



다시보기 CGNTV 웹사이트 www.cgntv.net 내레이션 배우 박시은

붓스.핵심

Hands up

한국을 향한 사랑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조셉 붓소의 전도 & 버스킹 스토리

5월 31일(금) 유튜브 'KNOCK노크'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영상보기 YouTube 'KNOCK노크' 채널